

보도시점 : 2023. 3. 29.(수) 배포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3. 29.(수)

# 원희룡 장관, “불법 하도급은 국민세금 도둑질이자 분양가 사기 행위”

- 투명한 건설현장 인력 관리 및 대금지급 관리체계 구축해 나갈 것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희 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,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.
-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·관리하는 시스템이며,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.

<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>



-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,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,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,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.

< 전자카드제-임금직불제(대금지급시스템) 연계를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>

제도	건설공사 기능인 관리	활용 방안
전자카드제	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관리를 통해 실제 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	<p>The diagram shows two companies, A and B, each with an '전자카드' (Electronic Card) and '임금직불제' (Direct Payment System). Company A's card shows employees ①, ②, ③. Company B's card shows employees ④, ⑤. An arrow points from employee ③ in Company A to employee ③ in Company B, labeled '의심사례' (Suspicious Case), indicating that the same person is working for both companies.</p>
임금직불제	시공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	

\* (전자카드제) A업체 소속 ↔ (임금직불제) B업체 소속 ⇒ 불법하도급 의심·점검

-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
-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-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, 인력·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.
  - 현장 근로자 A씨는 “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.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 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소감을 밝혔다.
  -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“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되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.”고 말했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‘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.’, ‘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.’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.”면서,
  - “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,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,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”라고 지적했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,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  - “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”이라고 말하며,
  - “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마지막으로, “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,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”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였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우철 (044-201-3504)
		담당자	서기관	김태훈 (044-201-3507)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	책임자	팀 장	조숙현 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원 (044-201-3541)



1 불법하도급 유형 및 실태

- (유형) 건설산업법은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·경제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다단계 하도급 등은 엄격히 규제

불법하도급 주요 유형

유형	위반내용	근거
무자격자 하도급	✓ <u>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</u>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 * (예)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펌프카 임대사업자 (건설업 무등록)에게 하도급	법제25조 제2항
일괄 하도급	✓ 도급받은 공사의 <u>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</u> 하도급한 경우 * (예) 도급받은 교량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	법제29조 제1항
재(다단계) 하도급	✓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<u>다시 하도급</u> 하는 경우 * (예)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다른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계약금액의 50%를 재하도급	법제29조 제3항

- (현장실태) 불법하도급은 공모를 통한 이면·구두계약으로 적발이 곤란\*하나, 전문가들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

\* 불법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(일명 백지계약) 하고, 명함과 작업복도 하도급업체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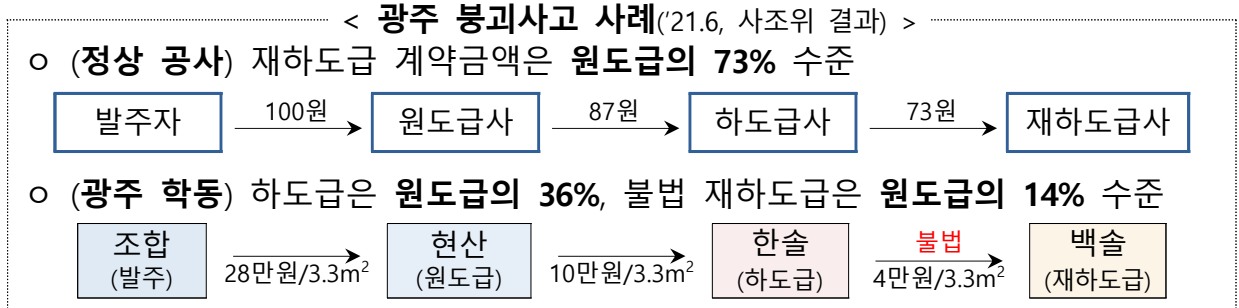
- 실제, 최근 5년간('18~'22) 무자격자·일괄·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707건의 행정 처분(지자체)이 있었으며, 무자격자 하도급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

연도별 불법하도급 유형별 처분 현황(지자체)

연도	계	무자격자	일괄	다단계
2022	164	141	12	11
2021	163	138	12	13
2020	162	129	24	9
2019	106	76	21	9
2018	112	78	26	8
합계(%)	707(100)	562(80)	95(13)	50(7)

## 2 불법하도급의 문제점

- (부실시공)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“삭감된 공사비에 맞춘” 무리한 공사로 부실시공과 유지관리비용 증가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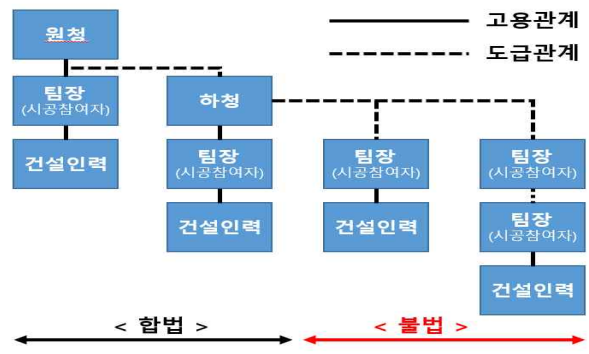


- (안전 및 근로여건) 불법하도급 과정에서의 공사비 누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, 임금삭감 및 임금체불 문제도 야기

## 3 불법하도급의 원인

- 현장에 가장 만연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의 중요한 원인은 건설현장의 투명하지 않은 인력 및 공사대금 관리

- 건설사가 팀·반장을 통해 특정 물량을 도급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
- 현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시공하는지, 공사대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관리되지 않아 노무비, 공사대금 누수 유인



## 4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 방안

◆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지급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 -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

### □ 도입현황

- (전자카드)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(20.11)

- (적용범위) 현재 50억 이상 공공공사, 100억 이상 민간공사에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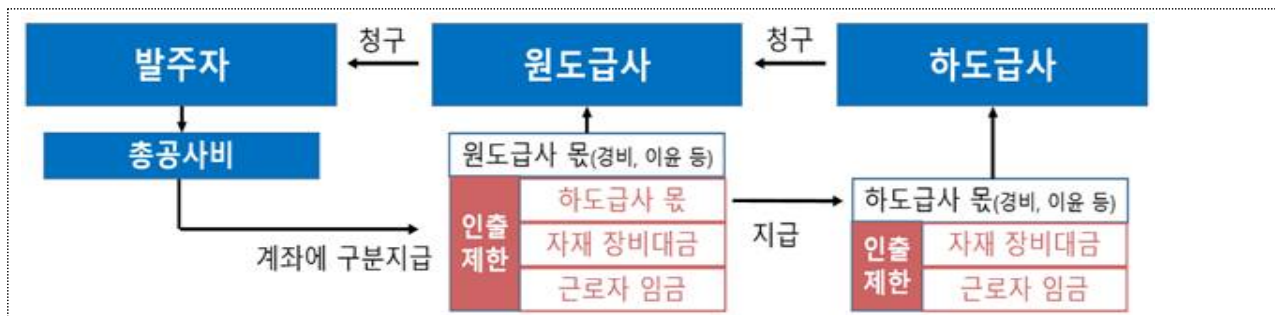
<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> \* 공사에정금액 기준

구분	'20.11.27.~'22.6.30.	'22.7.1~'23.12.31.	'24.1.1. 이후
공공공사	100억 이상	50억 이상	1억 이상
민간공사	300억 이상	100억 이상	50억 이상

○ (임금직불제)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발주자가 노무비,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\* 도입('19.6)

\* (공공) 조달청하도급지킴이, 철도공단체불e제로, 강원대금지킴e 등 (민간) 노무비닷컴, 이콘 등

<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>



- (적용범위) 30일 이상 & 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의무사용, 민간공사 사용시 인센티브(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20% 인하, 시평가점 5점)

\*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72개 기업, 100위 미만 131개 기업이 민간 시스템 사용 중

○ (전자카드 -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) 건설사의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를 연계하여 대금 지급('20.12)

\* 전자카드시스템의 출퇴근 정보로 임금대장 작성후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임금 청구

- (적용범위) 국토부 산하·소속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중

## 5 향후 계획

□ 전자카드 -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, 민간 시범사업(전자카드-노무비닷컴) 추진